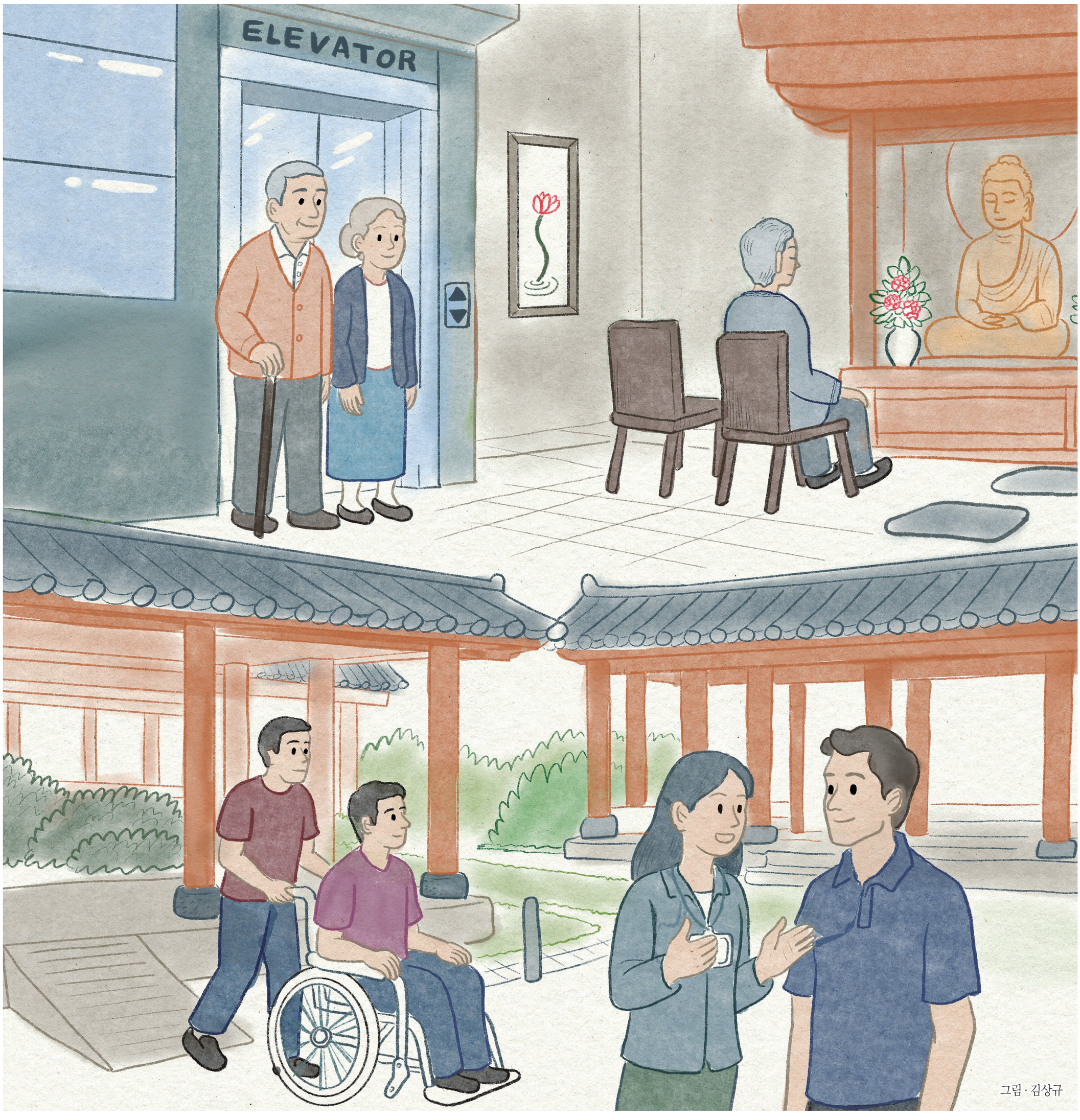


그림 · 김상규

無장애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사회적 약자들도 살기 좋은 사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물을 뜻하는 배리어(Barrier)와 벗어난다는 뜻의 프리(Free)의 합성어로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1974년 국제연합(UN)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배리어프리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이후 일본·스웨덴·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이나 도로·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배리어프리뿐 아니라 자격·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2008년부터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위해 BF(Barrier Free)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설에 대한 BF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BF 인증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베리어프리는 단순히 출입문 앞의 턱을 제거하는 물리적 조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세대와 계층이 불편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사회적 다짐이자, 나아가 우리 문화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불교계의 베리어프리 현황은 어떨까요?

사찰 안에서 베리어프리를 실현하는 노력은 조금 아쉬운 수준입니다. 최근 지어진 현대식 사찰과 포교당 등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천년고찰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의 경우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과 '국가유산기본법'이 서로 상충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찰은 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누구나 함께 법을 듣고 기도하는 공간이기에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들은 '장벽'을 없애기 위해 오늘도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 출현율은 현재 약 5.5%, 204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간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베리어프리가 소수를 위한 배려의 차원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장벽까지 허무는 차원으로 확대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설을 보완하고 문턱을 없애는 것을 넘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거해야 할 장벽은 '마음'에 있지 않을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주세요. 사회적 약자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나와 같은 너'입니다.